

스페인어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에 관한 연구*

심 상 완

1. 서 론

본 논문의 목표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어 및 카리브 연안 지역 스페인어의 [보문소-흔적] 효과'(that-trace effect) (cf. Chomsky & Lasnik 1977)의 부재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주의적 개념(Chomsky 1993, 1994, 1995)들이 많이 사용되게 될 것이다. 원리와 매개변인(principles & parameters)의 테두리 내에서 스페인어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는 주어가 우선 동사후 위치(postverbal position)로 이동한 다음 다시 주절로 의문사 이동을 하는 데 기인한다는 Rizzi (1982)의 분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최소이론과 마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후 새로운 대안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절에서는 스페인어의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에 관한 기존의 설명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 3절에서는 기존의 분석이 지니는 이론적, 경험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제 4절에서는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에 관한 대안적 분석이 제시된다. 제 5절에서는 우리의 제안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안이 제시된다. 제 6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이 간략히 제시되며 마지막의 부록 부분에서는 스페인어의 [보문소-흔적] 부재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한 방법이 제시된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주최 제 30 회 연례 어학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초안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 두 분과 게재를 허락해주신 편집자 분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 본인에게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2. [보문소-흔적] 효과 부재에 대한 기존의 분석

영주어(null subject) 현상을 보여주는 로맨스 언어(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카탈란어 등)는 아래 (1)과 (2)의 예문에서 보듯이 내포절 주어의 원거리 의문사 이동에 있어서 영어와 달리 [보문소-흔적]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1, 2}

- (1) *Who, do you believe that *t_i* will come?
 (2) Quién cree que vendrá?
 who believes-2sg that come-Fut-3sg
 ‘Who do you believe *(that) will come?’

그런데 (2)가 보여주는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가 이들 언어의 “풍부한 (rich)” 일치소(이하 Agr)가 주어 위치의 흔적 즉, 변항을 고유 지배(proper govern)하여 공범주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³ 왜냐하면 Rizzi (1982)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아래 (3)에서 내포절의 동사전 위치(preverbal position)의 부정 양화사(negative quantifier)는 대작용역(wide scope)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 (3) a. *No quiero que nadie venga.
 not want-1sg that anybody come-Subj-3sg
 ‘*for no *x*, I want that *x* come’
 b. [nadie; [no quiero que *t_i* venga]

만약 논리형태에서 이동한 부정 양화사의 흔적을 내포절의 Agr이 고유 지배할 수 있다면 왜 (3a)의 부정 양화사가 대작용역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Rizzi는 (3a)의 경우를 근거로 하여 로맨스 언어에서도 [보문소-흔적] 효과는 존재하며 다만 (2)가 정문인 이유는 아래 (4)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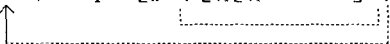
¹ 이 현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주절의 동사가 preguntar ‘to ask’ 유형인 경우에는 [보문소-흔적]의 효과가 나타난다. (cf. Danford & Arrieta-Steman 1994:263)

(i) *¿Quién, te preguntó tu madre (que) *t_i* llamó?
 who you asked-3sg your mother that called-3sg
 ‘Who did your mother ask you that called?’

² Chomsky & Lasnik (1977)에서는 주어의 흔적을 제거하는 pro-탈락(pro-drop) 규칙으로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가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³ 최소이론에서는 ‘지배(government)’의 개념이 사라지므로 이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범주 원리는 아무런 이론적 의의가 없게 된다. (Chomsky 1993, 각주 19)

은 구조에 기인한다고 제안한다.

(4) Quién, ... que [_{IP} t_i [_{VP} [_{VP} vendrá] t_i']]?


즉, 영주어를 허용하는 로맨스 언어는 영어와 달리 주어가 동사 뒤로 자유로이 후치될 수 있고 동사후 위치는 동사 혹은 Infl (cf. Rizzi 1990)에 의해 고유 지배되는 위치이므로 여기서부터 원거리 의문사 이동이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도 이같은 메커니즘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3. 기존 분석의 문제점

3.1. 최소주의와의 갈등

앞절에서 살펴본 Rizzi의 분석은 원리와 매개변인의 태두리 내에서 가장 적절한 설명인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최소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 듯하다. 첫째, Chomsky (1995)에서는 이동의 모든 단계마다 어떤 종류의 자질이 점검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주어가 VP로 우향이동하는 것은 무슨 자질의 점검 때문인지가 모호하다. 왜냐하면 자질 점검은 VP 단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자질이 점검되기 위해서는 점검될 자질을 지닌 요소가 VP 밖의 어떤 기능핵으로 유인/이동(Attract/Move)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IP Spec에서 VP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둘째, 설령 내포절 주어가 자질 점검을 위해 VP로 우향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체(substitution)가 아닌 부착(adjunction)이라고 가정되므로 역시 문제가 되는 듯하다. 왜냐하면 Chomsky (1994, 1995)에서는 부착 위치는 핵의 자질 점검 영역(checking domain)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Rizzi의 제안을 살리기 위해 동사전 위치에서 VP로 부착-이동한다고 말하지 않고 대신 동사구내 주어 가설(VP internal subject hypothesis)을 수용하여 아래 (5)에서 보듯이 주어가 VP 지정어(혹은 V^{MAX})에 기저 생성된 다음 여기서부터 의문사 이동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에 관한 Rizzi의 제안이 최소이론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Quién, ... que [_{IP} [_{VP} [_V vendrá] t_i]]]?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없지는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5)의 구조에서는 동

사후 위치에 남는 흔적(변항)이 지배하에서 I로부터 격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소이론에서는 ‘지배’의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격점접은 지정어-핵(Spec-Head) 혹은 핵-핵 관계를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 IP Spec에 허사 pro를 삽입하여 이것이 VP 내에 남는 주어의 흔적과 일종의 연쇄(CHAIN)(Chomsky 1986)를 형성하여 후자에 격을 전달해주면 격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메커니즘은 존재구문(existential construction)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definiteness effect)을 고려한다면 역시 문제가 되는 듯하다. 왜냐하면 스페인어는 후치주어로 특정(specific) 명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6) There is a man/*the man in the garden.
 (7) Il est arrivé trois filles/*la fille.
 there is arrived three girls/the girl
 (8) Llegaron tres hombres/mis amigos.
 arrived-3pl three men /my friends

3.2. 경험적인 문제점

이번에는 앞서 제시한 이론적 문제 이외에도 (2)의 문법성이 주어와 동사후 위치에서 이동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Torrego (1984)에 따르면 스페인어는 시제 의문-섬(finite *wh*-islands) 밖으로의 원거리 이동과 관련하여 주어와 목적어가 대조를 보인다. 즉, 주어는 이동이 가능하나 목적어는 그렇지 못하다.

- (9) *Quién* no sabes cuánto pesa?
 who not know-2sg how many kilos weigh-3sg
 ‘Who don’t you know how much weighs?’
 (10) **Qué* *diccionario* no sabías a *quién* había devuelto Celia?
 what dictionary not knew-2sg to whom had-3sg returned Celia
 ‘What dictionary did you know to whom Celia had returned?’

Torrego는 전치된 동사는 IP(혹은 C)에 부착된다고 가정하면서 위의 대조를 공범주 원리(cf. Chomsky 1981)로 설명한다. 즉, (9)가 정문인 이유는 아래 (11)에서 보듯이 전치된 동사 *pesa* ‘weigh-3sg’가 주어 *quién* ‘who’의 흔적(*t*)을 어휘 지배(lexical govern)할 수 있어서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고 (10)이 비문인 이유는 (12)에서 보듯이 이동한 목적어 *qué diccionario* ‘what dictionary’의 흔적(*t*)이 선행사 지배(antecedent govern)도 그리고 동사에 의한 어휘 지배도 되지 않아 공범주 원리를 위반하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⁴

(11) Quién, no sabes [CP cuánto, [IP pesa [IP t_i t_v t_j]]]?
who not know-2sg how many kilos weigh-3sg

(12) *Qué diccionario, no sabías [CP a quién_i [IP había devuelto [IP Celia
[VP t_v t_i t_j]]]?
what dictionary not knew-2sg to whom had-3sg returned Celia

(9)와 (10)의 대조는 주어가 의문사 이동을 시작하는 위치와 목적어가 의문사 이동을 시작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왜냐하면 만약 주어와 목적어의 의문사 이동이 모두 VP 내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왜 이같은 대조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어의 의문사 이동이 IP Spec이 아닌 VP 내에서부터 시작된다면 (11)에서 이동한 주어의 흔적은 (12)의 목적어 흔적과 마찬가지로 선행사 지배도 어휘 지배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9)는 사실과 달리 비문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Jaeggli (1988)에서 주목된 것처럼 스페인어에서 주절과 달리 내포절의 경우 우월성 효과(superiority effect)가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듯하다.

(13) a. Quién dijiste que compró qué?
who said-2sg that bought-3sg what
'Who don't you know what bought?'

b. *Qué dijiste que quién compró?
what said-2sg that who bought-3sg
'What don't you know who bought?'

(13a,b)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VP 내에서부터 의문사 이동을 시작한다면 이동을 유발하는 주절의 의문자질(Q) 입장에서 볼 때 동사의 최소 영역(minimal domain) 내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는 유인자인 의문자질로부터 공히 등거리(equidistant)에 있게 되므로 목적어가 주어보다 지나서 이동하는 (13b)는 사실과 달리 정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5,6} 반면에 주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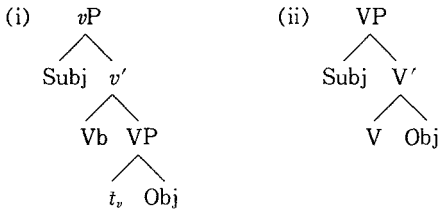
⁴ Torrego는 IP에 부착된 동사가 VP 내의 목적어 흔적을 고유 지배할 수 없으며 동사의 흔적 또한 고유 지배 능력이 없다고 가정한다.

⁵ Chomsky (1993)에서는 이동의 목표지(target)와 중간에 가로 놓여 있는 상대적 장벽이 같은 최소영역 내에 있으면 이 두 위치는 이동하는 요소로부터 등거리에 있다고 보았으나 Chomsky (1995:356-357)에서는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이동을 가로 막는 요소와 이동하는 요소가 같은 최소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도 이동의 목표지로부터 둘 다 등거리에 있어서 이동이 허용된다고 본다.

주절로 의문사 이동을 하기 전에 이미 VP 밖의 위치(가령 IP Spec)에 있다고 본다면 이 위치는 목적어의 위치(VP 내부)보다 의문사질에 더 가까우므로 (13b)의 비문법성은 최소연결 조건(Minimal Link Condition)⁷ 위반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⁸

셋째, 카리브 지역 스페인어 방언의 경우도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가 동사후 위치로부터의 이동에 연유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듯하다. Toribio (1993)에 따르면 평서문에서 주어와 동사 앞에도 나타날 수 있고 동사 뒤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어와 달리 카리브 지역의 스페인어는 주어와 항상 동사 앞에 나타난다.

⁶ Chomsky (1995:4.10)에서는 Larson (1988)의 제안을 수용하여 (i)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와 VP의 지정어가 아닌 경동사(light verb)를 그 핵으로 하는 최대투사(vP)의 지정어 위치에 삽입된다고 가정한다($V_b=[_v V, v]$):



VP를 (i)처럼 본다면 V_b 의 최소 영역에 목적어(Obj)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어(Subj)가 어떤 유인자로부터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i) 대신 (ii)와 같은 기존의 VP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와 목적어 둘 다 동사(V)의 최소 영역내에 있어서 어떤 유인자로부터 등거리에 있다고 보기로 하겠다.

⁷ 최소연결 조건 (Chomsky 1995:311)

K attracts α only if there is no β , β closer to K than α , such that K attracts β .

⁸ 그러나 단문의 경우 스페인어는 우월성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 사실은 주어의 의문사 이동이 VP 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예가 되는 듯하다.

- (i) a. *Quién compró qué?*
 'Who bought what?'
 b. *Qué compró quién?*
 *'What did who buy?'

즉, (ib)의 문법성은 주어와 목적어가 둘 다 VP 내에 머물기 때문에 V의 최소영역 내에 있는 주어 목적어는 목표지(target)로부터 둘 다 등거리에 있어서 목적어가 주어를 지나 이동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ib)의 문법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목적어 *qué*가 주어 *quién*을 넘어 CP Spec으로 이동시에 동사가 C로 올라간다면 CP Spec의 목적어와 IP Spec의 주어는 [_c I-C] 연쇄의 최소영역내에 들게 되므로 문장내의 다른 어떠한 위치로부터도 등거리에 있게 되고 따라서 목적어가 주어를 지나 이동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14) a. Juan llamó.
 ‘John called.’
 b. Juan llegó.
 ‘John arrived.’

그리고 의문문에서 주어-동사의 의무적 도치가 일어나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어((15))와 달리 카리브 지역 스페인어는 주어-동사의 어순만이 가능하다((16)).

- (15) a. Qué dice Chomsky sobre la política en América Latina?
 what say-3sg Chomsky on the politics in America Latin
 ‘What does Chomsky say about politics in Latin America?’
 b. *Qué Chomsky dice sobre la política en América Latina?
 (16) a. Qué yo les voy a mandar a esos muchachos?
 what I to-them go to send to those boys
 ‘What am I going to send to those boys?’
 b. Cuánto un médico consume en un mes?
 how-much a doctor consumes in a month
 ‘how much does a doctor spend in a month?’

이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Toribio는 카리브 지역 스페인어의 I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어와 달리 지배하에서 VP 지정어로 주격을 할당할 수 없고 영어의 I처럼 오직 지정어-핵 일치하에서 IP 지정어에 주격을 할당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어와 달리 이 방언에서는 I가 영어의 I처럼 비어휘적(non-lexical)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오직 IP 지정어에만 격을 할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카리브 지역 스페인어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보문소-흔적]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17) Quién tú piensas que llegó?
 who you think-2sg that arrived
 ‘Who do you believe that arrived?’

이 방언에서는 주격이 할당될 수 있는 위치가 오직 IP 지정어 뿐이고 (2)와 같은 예문이 보여주는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에 대한 Rizzi (1982)의 분석도 주어가 자유로이 후치될 수 있는 언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7)에서 내포질의 주어는 아래 (18)처럼 동사전 위치에서 주절로 의문사 이동을 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18) Quiéni ... [_{CP} t_i' que [_{IP} t_i llegó]]?

그러나 (18)은 [보문소-흔적] 효과를 낳는 형상(configuration)이므로 (17)은 사실과 달리 비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잘못 예측된다. 따라서 (17)의 문법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듯 싶다.⁹ Toribio는 (17)의 문법성을 보문소 *que* 'that'가 주어 위치의 흔적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먼저 이같은 주장의 배경이 되는 불어의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자.

- (19) a. Qui penses-tu qui est arrivé?
 who think-2sg-you that is arrived
 'Who do you think that has arrived?'
 b. *Qui penses-tu que est arrivé?

(19)에서 보듯이 불어에서 내포절 주어가 주절로 의문사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내포절의 보문소 *que*가 *qui*로 전환된다. Kayne (1981)은 이같은 형태적 변화는 의문사가 주절로 이동할 때 내포절 CP의 Spec에 남기는 의문사

⁹ (17)의 문법성과 관련하여 비록 카리브 연안 스페인어에서 주어-동사의 도치가 없다 하더라도 주어의 의문사 이동이 어떤 형태로든 동사후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Raposo (1988)에서는 주어의 후치가 불가능한 문맥에서는 주어의 원거리 이동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포르투갈어는 주절에서건 내포절에서건 주어의 후치를 허용하는 언어이지만 사실(factive) 동사의 굴절 바시제 보어(inflected infinitival complement)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즉, 조동사(terem 'have')를 지니는 절은 주어의 후치를 허용하지만(cf. (iib)) 조동사를 지니고 있지 않는 절은 주어의 후치를 허용하지 않는다(cf. (ib)).

- (i) a. Eu lamento [algumas pessoas comparem esse jornal]
 'I regret some people to-buy-Agr that newspaper.'
 b. ?*Eu lamento [comparem esse jornal algumas pessoas]
 'I regret to-buy-Agr that newspaper some people.'
 (ii) a. Eu lamento [algumas pessoas terem comprado esse jornal]
 'I regret some people to-have-Agr bought that newspaper.'
 b. Eu lamento [terem comprado esse jornal algumas pessoas]
 'I regret to-have-Agr bought that newspaper some people.'

그런데 내포절 밖으로의 주어의 이동에 있어서도 이같은 대조가 유지된다. 즉, 주어의 내포절 밖으로의 원거리 이동은 주어의 후치를 허용하는 조동사를 지닌 절에서만 허용된다.

- (iii) ?*Que pessoas, tu lamentas [e, comprarem esse jornal]?
 'What persons, do you regret e, t-buy-Agr that newspaper?'
 (iv) Que pessoas, tu lamentas [e, terem comprado esse jornal]?
 'What persons, do you regret e, to-have-Agr that newspaper?'

의 흔적이 지정어-핵 일치를 통해 보문소에 의문사의 지표를 전달한 결과이며 이 *qui*가 주어 흔적을 고유 지배(선행사 지배)하여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킨다고 설명한다. Toribio는 이같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비록 스페인어의 *que*는 불어의 *que*처럼 형태적 변화를 겪지는 않지만 CP Spec에 의문사가 이동하면서 남기는 흔적으로부터 지표(index)를 물려받아 주어 위치의 흔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같은 해결안은 스페인어의 보문소 *que*가 고유 지배자로 기능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이 없이 단순한 유추에 의한 것이므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페인어의 보문소 *que*가 주어 위치에 대한 고유 지배자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 Rizzi (1990:58)는 아래 (20b)의 문법성이 주절 동사가 *wh*-변항에 예외적으로 격을 할당(exceptional Case marking)할 수 있는 데 연유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22)에서 보듯이 불어의 *croire* 'believe'는 영어의 *believe*와 달리 예외적인 격할당 능력이 없어서 내포절의 주어 위치에 PRO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 (20) a. *L'homme que je crois* [*t* qui [*t* est intelligent]]
 the man that I believe who is intelligent
 b. *L'homme que je crois* [*t'* C [*t* être intelligent]]
 the man que I believe be intelligent
- (21) a. I believe [[this man to be intelligent]]
 b. *I believe [PRO to be intelligent]
- (22) a. *Je crois [[cet homme être intelligent]]
 I believe this man be intelligent
 b. Je crois [[PRO être intelligent]]
 I believe be intelligent

불어에서 *croire*가 내포절 주어에 격을 할당하지 못한다면 (20b)에서 변항 *t*가 어떻게 격여과(Case filter)와 '조합적(conjunctive)' 공범주 원리(Rizzi 1990)¹¹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Rizzi는 지정어-

¹⁰ Kayne (1981)은 불어에서의 예외적 격표시의 부재를 영어의 보문소 *for*와 불어의 보문소 *de*간의 차이와 연관시킨다. 즉, *believe*와 *croire*는 모두 CP를 보어절로 취하지만 이 보어절의 주어에 격을 주고 안주고의 여부는 이 두 구문의 핵을 이루는 추상적 전치 보문소(abstract prepositional complementizer)의 지배 능력의 차이라고 본다.

¹¹ 비대명사류 공범주는

- (i) 핵에 의해 고유 지배되어야 한다.
 (ii) 선행사 지배 또는 의미역 지배되어야 한다.

핵 일치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인지(epistemic) 및 서술(declarative) 술부는 아래에서처럼 시제절 및 비시제절의 C에 Agr 자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23) L'homme que je crois [*t'* Agr [*t* être intelligent]]

(23)에서 Agr은 지배하에서 주어 위치의 흔적에 격을 할당하여 격여과를 만족시킨다. 또한, Agr은 중간 흔적 *t'*로부터 지정어-핵 일치를 통해 지표를 물려받아 주어 위치의 흔적을 고유 핵-지배(properly head govern)하므로 공범주 원리도 역시 만족시킨다.

한편, 스페인어도 의미적으로 believe에 해당하는 동사 creer가 예외적 격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어와 패턴을 이룬다.

- (24) a. *Creo [[este hombre haber ganado]]
 believe-1st this man to have won
 b. Creo [[PRO haber ganado]]
 believe-1st PRO to have won

그러나 스페인어는 불어와 달리 (20b)에 해당하는 문장 (25b)가 비문이다.

- (25) a. El hombre que creo [*t'* que [*t* es inteligente]]
 the man that believe-1st that is intelligent
 b. */?El hombre que creo [*t'* C [*t* ser inteligente]]
 the man that believe-1st be intelligent

(25b)의 비문법성을 격여과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격여과 위반이 되려면 주절동사 *creer*가 내포절 C에 Agr 자질 자체를 아예 선택하지 못한다고 봐야하는데 그럴 경우 불어 (20b)의 문법성이 설명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불어 croire와 creer는 둘다 예외적 격표시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을 소유한다고 볼 때 스페인어의 creer가 내포절 C에 Agr 자질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불어의 croire도 (20b)에서 내포절 C에 Agr 자질을 선택 못한다고 봐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b)는 격여과 및 조합적 공범주 원리를 위반하여 사실과 달리 비문이 되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25b)에서 변항 *t*는 (20b)와 마찬가지로 주절의 동사가 내포절 C에 Agr 자질을 선택하고 이것이 지배하에서 이에 격을 할당한다고 보기로 하겠다. 그렇다면 (25b)의 비문법성은 격여과 위반이 아닌 공범주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즉, C에 선택된 Agr 자질은 중간 흔적 *t'*와 일치하지 않아 지표를 물려받지 못하여 주어 흔적을 고유 핵-지배 못하게 되고 따라서 공범주 원리를 위반하여 비문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스페인어의 경우 C에 있는 que는 영어의 that와 마찬가지로 일치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주어의 흔적에 대한 허가자가 된다는 Toribio의 주장은 유지될 수 없다고 결론짓기로 한다. 더군다나 I가 비어휘적인 카리브 연안 스페인어에서 que가 주어 위치에 대해 고유 지배자가 될 수 있다면 역시 I가 비어휘적인 영어는 왜 that가 주어 흔적에 대한 고유 지배자가 될 수 없는지가 불분명하다.

넷째, 시제 내포절의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대응사가 주절의 주어에 의해 결속될 수 없는 사실 또한 동사후 위치에서의 이동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는 듯하다. Chomsky (1986)에서는 기존의 주격 섬 제약(Nominative Island Constraint) 구문이 결속원리가 아닌 공범주 원리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26) *John_i thinks that himself_i is honest.

Chomsky는 위 예문의 비문법성이 재귀사 himself가 LF에서 I로 이동할 때 남기는 흔적이 고유지배될 수가 없고 따라서 공범주 원리를 어기는 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27) John_i himself_j-thinks that t_i is honest.

스페인어의 경우도 영어처럼 비문이다.

(28) *Juan_i cree que sí mismo_i, es inteligente.

만약 재귀사의 이동이 동사전 위치에서 일어난다면 이동 후의 구조는 (27)과 같을 것이므로 [보문소-흔적] 효과를 낳는 형상이 되어 비문인 사실을 공범주 원리 위반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만약 동사후 위치로 먼저 부착-이동한 다음 다시 주절의 I로 이동할 수 있다면 VP 부착 위치에 남는 흔적을 내포절의 I가 고유 지배할 수 있어서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켜 (28)은 사실과 달리 정문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스페인어 내포절 주어의 원거리 이동은 동사후 위치(VP Spec)가 아니라 동사전 위치(IP Spec)에서부터 일어난다고 결론짓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동사전 위치에서 내포절 주어가 원거리 의문사 이동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보문소-흔적] 효과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냐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대안적 분석

이번 절에서는 스페인어에서 내포절 주어의 원거리 의문사 이동은 동사

전 위치에서 일어나되 [보문소-흔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포절 주어가 의문사 이동시 CP와 IP 사이에 있는 중간 투사를 통해 이동하는 데 연유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CP와 IP 사이에 새로운 중간투사가 존재한다는 심상완 (1996)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자. 영어는 직접의문문에서는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가 의무적이지만 간접의문문에서는 도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스페인어는 두 구문 모두에서 의무적인 주어-동사의 도치가 요구된다.

- (29) a. What did John buy?
 b. *What John bought?
- (30) a. John wonders what Mary bought.
 b. *John wonders what {bought Mary/ did Mary buy}
- (31) a. Qué compró María?
 what bought-3sg Mary
 'What did Mary buy?'
 b. *Qué María compró?
- (32) a. Me pregunto qué libro compró María.
 me ask-1sg what book bought-3sg Mary
 'I wonder which book Mary bought.'
 b. *Me pregunto qué libro María compró.

wonder 유형의 주절 동사에 의해 내포절 C에 선택된 [+wh] 자질이 어휘적 보문소에 상응하는 요소여서 동사의 상승을 막는다고 본다면 영어(cf. (30))에서 내포절에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사실이 설명될 수 있지만 왜 스페인어(cf. (32))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로 주어-동사 도치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¹² 이같은 대조에 주목하여 심상완 (1996)에서는 스페인어의 경우는 가령 (32)와 같은 예문에서 내포절의 CP (이하 CP₁)와 IP 사이에 새로운 중간 투사가 존재하며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것은 동사가 이 투사의 핵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것이라 제안한다.¹³

¹²이 문제를 해결키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존의 해결안과 이에 대한 비판은 심상완(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¹³익명의 한 논평자에 따르면 CP와 IP 사이에 새로운 중간 투사의 설정은 최소주의에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소주의를 토대로 발표한 여러 명의 언어학자들(Branigan 1992, Watanabe 1993, Platzack 1994 등)의 논문에서도 CP와 IP사이에 새로운 중간 투사가 설정되고 있다. 그리고 Chomsky (1995)에서는 비록 기존의 AgrP까지도 없애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대신 VP위에 새로운 *v*P를 설정하고 있다.

- (33) Me pregunto [_{CP1} qué libro_i; C [_{CP2} t_i' compró₁ [_{IP} María t_1 t_i]]] ((32))
[+wh]

스페인어 내포절에서는 중간 투사 CP₂가 존재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는 (2)와 (17) 같은 구문에서 주어의 의문사 이동은 실제로 각각 (34), (35)와 같이 일어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 (34) Quién_i crees [_{CP1} t_i'' que [_{CP2} t_i' vendrá₁ [_{IP} t_i t_i]]]? ((2))
[-L] [-L] [-L] [+L]
- (35) Quién_i tú piensas [_{CP1} t_i'' que [_{CP2} t_i' C₂ [_{IP} t_i llegó]]]? ((17))
[-L] [-L] [-L] [+L]

즉, 주어의 의문사 이동은 IP 지정어에서 출발하여 중간의 CP₂ 지정어를 거쳐 일어난다는 것이다. (34)와 (35)의 유일한 차이는 동사가 CP₂의 핵 위치로 명시적으로 이동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뿐이다. 우리는 이 차이를 핵 C₂의 동사 자질이 강하냐 아니냐의 차이에 연유한다고 보기로 하겠다. 즉,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어에서는 C₂의 명사적 자질(혹은 운용자 자질)뿐만 아니라 동사적 자질(verbal features) 또한 강해서 동사의 명시적인 이동을 요구하는 반면 카리브 연안 스페인어는 이 자질이 약해서 동사의 이동이 논리형태까지 지연된다고 보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C₂ 지정어 위치에 남는 흔적이다. [보문소-흔적] 효과를 유발하는 흔적이 IP Spec에 있는 흔적이라기보다는 어휘적 보문소 바로 옆에 오는 흔적이라고 본다면 (34), (35)에서 위반흔적(offending trace)은 I의 지정어 위치에 있는 최초 흔적 t_i 가 아니라 C₂ 지정어 위치의 중간흔적 t_i' 이다. 그리고 이 위반흔적이 논리형태에 남으면 완전해석 원리를 어겨 도출을 파탄(crash)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Chomsky & Lasnik (1991:58)에서는 이동에 의해 형성된 연쇄가 비동질적(non-uniform)이면 일종의 최후 수단(last resort)으로 위반흔적이 삭제될 수 있다고 제안을 한다.(cf. Lasnik & Saito 1984) 동질성(uniformity)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6) 연쇄의 구성원 모두가 P-특성을 지니거나 혹은 모두가 非 P-특성을 지니면 그 연쇄는 P-특성과 관련하여 동질적이다.(The chain C is uniform with respect to P(UN[P]) if each α_i has property P or each α_i has non-P.)

(36)에서 말하는 P-특성을 L-연결성(L-relatedness)이라고 가정해보자. 최소이론의 가정에 따르면 I(T와 Agr)는 L(exical)-자질을 지닌 핵이므로 I의 지정어는 L-연결된 위치지만 C는 L-자질을 지닌 핵이 아니므로 그 지

정어 위치는 L-연결되지 않은 위치이다.¹⁴ (34), (35)에서 주어의 의문사 이동으로 형성된 연쇄는 그 첫 구성원은 L-연결된 위치([+L]로 표시)에 나머지 구성원은 L-연결되지 않은 위치([-L]로 표시)에 있으므로 L-연결성과 관련하여 비동질적이다. 따라서 최후 수단에 의해 위반흔적 t_i' 에 대해 삭제작용이 적용될 수 있다. 삭제작용을 통하여 위반흔적 및 나머지 중간 흔적들을 제거하면 연쇄는 논리형태의 합법적 요소(legitimate object)의 하나인 운용자-변항 연쇄(operator-variable chain)로 전환되어 도출이 합치되므로 (2), (17)과 같은 문장의 문법성이 설명될 수 있다.¹⁵

5. 예외적 경우

앞서 우리는 (37)과 같은 예문에서 내포질의 주어 *nadie*는 대작용역을 지닐 수 없고 오직 소작용역만을 지닐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37) *No quiero que nadie venga (= (3a))
 not want-1sg that anybody come-Subj-3sg
 '*for no x, I want that x come'

그런데 앞서 제안한 우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낳는다. LF에서 *nadie* 'anybody'가 CP₂의 지정어를 거쳐 주절에 있는 *neg*의 지정어로 A'-이동을 한다고 본다면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¹⁵

- (38) [_{NegP} *nadie*_i [_{Neg} *no* [_{IP} *quiero* [_{CP1} t_i'' *que* [_{CP2} t_i' [_{IP} t_i *venga*]]]]]]]
 [-L] [-L] [-L] [+L]

위의 구조에서 CP₂의 지정어에 남은 흔적 t_i' 는 도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¹⁴ (34)에서 우리는 동사([₁ V I])가 C₂까지 올라간다고 보므로 이 경우 C₂가 L-자질을 획득하게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cf. Chomsky 1993, 각주 33) 우리는 이 경우에 C₂가 L-자질을 획득하지 못하며 따라서 지정어 위치도 L-연결되지 않은 위치라고 보기로 한다.

¹⁵ 영어 예문 (1)은 비문이므로 우리의 분석은 (1)과 같은 예문에서는 CP₂와 같은 것이 투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영어에서는 CP와 IP 사이에 어떤 중간 투사가 절대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가령 내포질에 주격화 또는 부정 도치(negative inversion)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중간 투사(가령 PolP(cf. Culicover 1991))가 출현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i) Leslie is the person who I said [_{CP} that [_{PolP} *under no circumstances* would [_{IP} run for president]]].

¹⁶ Chomsky (1995)에 따르면 LF에서는 오직 자질이동만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기존의 가설을 따라 LF에서도 최대투사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자.

위반흔적이지만 *nadie*의 이동으로 형성된 연쇄가 L-연결성과 관련하여 비동질적이므로 최후 수단으로서 삭제 작용이 위반흔적에 적용될 수 있다.¹⁷ 따라서 이 작용이 위반흔적 및 다른 중간 흔적을 지우게 되면 연쇄는 논리형태의 합법적 요소인 운용자-변항 연쇄로 전환되므로 사실과 달리 *nadie*가 대작용역을 갖는 해석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아래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Lasnik & Uriagereka (1988:156)에 따르면 아래 (39)에서는 내포절의 부정 양화사가 대작용역을 가질 수가 있지만 (40)에서처럼 부정 양화사가 주제화(topicalization)된 경우에는 대작용역을 가질 수 없다.

(39) I don't think that Mary solved *any* problems.

(40) *I don't think that *any* problems, Mary solved.

이같은 대조와 관련하여 Lasnik & Uriagereka는 어떤 운용자가 S-구조에서 일단 작용역 유형(scope-type)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논리형태에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다고 제안한다.¹⁸ 이 사실은 최소이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¹⁷스페인어에서 부정 표시자의 출현(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정 표시자의 지정어에 있는 공운용자의 출현)은 부가어의 의문사 이동 혹은 주제화와 같은 A'-이동을 막는다.

- (i) a. Juan no le trató bien.
John not him treated well
b. **Cómo* no le trató bien *t*?
how not him treated well
(ii) a. *Dos conejos* mató el cazador *t*.
two rabbits killed the hunter
b. **Dos conejos* no mató el cazador *t*?
two rabbits not killed the hunter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스페인어의 Neg는 L-연결되지 않은 위치라고 가정키로 한다.

¹⁸Saito (1989)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i)을 살펴보자.

- (i) *Mary thinks that [the man that bought what], John knows who, *t*, likes *t*,

Saito에 따르면 (i)의 비문법성은 주제화된 구가 S-구조에서 일단 작용역이 결정되면 논리형태에서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what가 하위의 Comp로 이동하면 자신의 흔적은 고유 결속원리(Proper Binding Condition)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Epstein (1992)에서는 (40)에서 부정 양화사가 논리형태에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이유를 경제원리로 설명한다. 즉, 논리형태 이동은 순환적(cyclic) 이동이 아닌 단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S-구조에서의 주제화에 의한 이동과 논리형태에서 다시 주절로 이동하는 것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 이동이므로 논리형태에서 단번에 동사의 목적어 위치에서 주절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 덜 경제적이므로 이같은 이동은 배제된다고 설명한다.

같이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즉, 운용자 혹은 주제([+topic]) (cf. Branigan 1996) 자질 같은 강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문자화(Spell-out) 이전에 부정양화사가 주제 위치로 이동하여 필요한 자질이 모두 점검되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고 만약 논리형태에서 더 이상 이동하면 이는 최후 수단 위반이다.

우리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제기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스페인어에서 동사전 위치의 명사구는 주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cf. Contreras 1983) 그렇다면 (37)과 같은 문장에서 부정 양화사 *nadie*는 IP 지정어가 아닌 IP 밖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최소이론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37)에서 C₂의 운용자 혹은 주제 자질이 강하여 이를 문자화 이전에 점검해주기 위해 부정 양화사가 명시적으로 C₂의 지정어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필요한 자질의 점검 및 작용역 할당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고 만약 더 움직이게 되면 이것은 최후 수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따라서 우리는 (37)에서 *nadie*가 대작용역을 가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결론짓는다.²⁰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의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 현상을 새롭게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스페인어의 경우 CP와 IP 사이에 새로운 중간 투사가 존재한다는 심상완(1996)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문사의 이동은 IP Spec에서 이 새로운 중간 투사의 지정어를 거쳐 주절의 CP로 이동하게 되고 이 때 문제가 되는 중간 흔적은 최후 수단(cf. Chomsky & Lasnik 1991, Lasnik & Saito 1984)에 의거하여 삭제함으로써 도출이 합치되게 되어 문장이 문법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¹⁹Laka (1990)의 제안을 고려한다면 *Nadie*가 IP를 관할하는 ΣP 의 지정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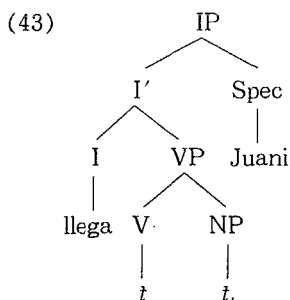
²⁰익명의 논평자는 양화사에 대한 논의에서 C₂의 자질을 강한 것으로 보고 이 자질이 일단 점검된 이상 최후 수단에 의해 양화사가 더 이상 이동을 안한다면 이와 달리 의문사는 왜 이 위치를 거친 이후에도 계속 앞으로 이동을 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자 한다. 내포절의 C₂의 자질 뿐만 아니라 주절의 Q 자질 또한 강하므로 이 자질은 반드시 문자화 이전에 제거되어야 하는데 의문사의 [+wh] 자질은 해석 가능한 자질이어서 C₂의 강한 자질을 점검한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아 앞으로 계속 이동하여 다른 강자질을 점검할 수 있다고 Chomsky는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 록

비록 Chomsky (1994, 1995)는 Kayne (1993)의 제안을 수용하여 언어 보편적 기본 어순이 SVO라고 보고 있으나 이 가정에서 벗어나 IP Spec이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스페인어의 [보문소-흔적] 효과의 부재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듯하다. 우선, 스페인어에서 IP Spec이 오른쪽에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지지해주는 듯한 예문을 살펴보자.

- (42) a. Llegó Juan.
arrive-3sg John
'John arrives'
b. *Arrives Jo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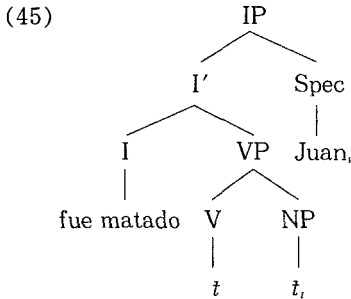
영어에서 능격동사 *arrive*는 목적어에 의미역을 할당할 수는 있지만 격을 할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격을 받기 위해 명사구가 동사전 위치로 이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스페인어는 명사구가 동사후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능격동사의 경우 목적어는 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반드시 이동해야만 한다고 본다면 (42a)의 문법성은 명사구가 VP 내에 있지 않고 IP Spec에 있다고 봐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스페인어에서 IP Spec이 오른쪽에 생성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명사구가 동사후 위치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42a)가 정문인 사실이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동태 구문의 경우도 이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cf. Jaeggli 1986)

- (44) a. Fue matado Juan por María.
was killed John by Mary
'John was killed by Mary'
b. *Was killed John by Mary.

영어와 같은 언어의 수동태 구문에서 ‘-ed’는 격을 흡수하여 명사구가 격을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격을 얻기위해 IP Spec으로 이동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수동구문에서 ‘-ed’가 격을 흡수함으로써 명사구로 하여금 격 위치로의 이동을 강제한다고 가정한다면 스페인어 수동태 구문에서 동사후 위치에 명사구가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IP Spec이 오른쪽에 형성될 수 있어서 VP 내에서부터 오른쪽에 형성된 IP Spec으로 이동했다고 본다면 (44a)의 문법성이 쉽게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명사구에서도 외부 논항이 명사구에서 항상 오른쪽에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IP Spec이 오른쪽에 생성될 수 있다는 가정을 지지해 주는 듯하다. (cf. Zubizarreta 1994)

- (46) La foto de Madrid de este fotógrafo.
 the picture of Madrid of this photgrapher
 (theme) (agent)

한편, Zubizarreta (1994)는 스페인어의 동사후 위치의 주어가 VP Spec이 아닌 IP Spec에 있다는 근거로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중 한 가지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탈리아어는 아래에서 보듯이 상적 부사(aspectual adverb)는 동사와 후치 주어 사이에 나타날 수 있으나(cf. (47)) 시간 부사(temporal adverb)는 그렇지 못하다. (cf. (48))

- (47) a. Vince sempre Gianni.
 win-3sg always John
 b. Non parla più nessuno.
 no talk-3sg more anyboy
 (48) a. ??Ha telefonato ieri Gianni.
 have-3sg called yesterday John

- b. ??Ti contattterà domani Gianni
 to you contact-3sg-Fut tomorrow John

그러나 스페인어는 시간 부사가 후치 주어 앞에 나타날 수 있다(cf. (50)).

- (49) a. Gana siempre Juan.
 win-3sg always John

- b. No habla más nadie.
 no talk-3sg more anyboy

- (50) a. Llamó ayer Juan.
 called-3sg yesterday John

- b. Te contactará mañana Juan
 to you contact-3sg-Fut tomorrow John

동사나 동사구를 수식하는 상적 부사는 VP 내에 생성되고 시제 형태소를 지닌 범주를 수식하는 시간 부사는 TP 내에 생성된다고 가정한다면 이탈리아어에서 왜 시간 부사가 후치 주어에 선행할 수 없는가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스페인어에서는 시간 부사가 후치 주어에 선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언어에서 후치주어는 VP 보다 상위의 기능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IP Spec이 스페인어에서 I의 오른쪽에 형성될 수 있으며 후치주어가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여기라고 보자. 그럴 경우 앞서 제안한 CP₂가 투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문소-흔적]의 부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문소-흔적] 효과를 유발하는 흔적은 선적으로(linearly) 보문소 바로 옆에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본다면 (51)과 같은 의문사의 원거리 이동은 [보문소-흔적] 효과의 형상을 낳지 않게 되고 따라서 (2)와 같은 문장의 문법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²¹

- (51) Quién_i crees [_i' que [_{IP}[_I [_{VP} vendrá _{t_i}] _{t_i}']?

참고 문헌

Branigan, P. (1992) *Subject and Complementizers*, Ph.D. dissertation, MIT.

²¹ CP₂가 투사된다면 이동은 아래와 같이 이뤄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앞서 제안한 바대로 중간흔적을 지우게 되면 앞서의 분석과 같이 운용자-변항의 연쇄가 형성될 것이다.

- (i) Quién crees [_{CP₁} _i' que [_{CP₂} _t' [_{IP}[_I vendrá] _t']?

- Branigan, P. (1996) 'Verb-Second and the A-bar Syntax of Subjects,' *Studia Linguistica* 50, 50-79.
- Browning, M. (1996) 'CP Recursion and *that-t* Effects,' *Linguistic Inquiry* 27, 237-255.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Praeger, New York.
- _____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 S. Keyser ed.,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1-52, The MIT Press, Cambridge.
- _____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5, MIT.
- _____ (1995) 'Categories and Transformations,' ms.
- _____ & H. Lasnik (1977) 'Filters and Control,' *Linguistic Inquiry* 8, 425-504.
- _____ & H. Lasnik (1991) 'Principles and Parameter Theory,' in J. Jacobs, A. von Stechow, W. Sternfeld, and T. Vennemann, de Gruyter ed.,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 Contreras, H. (1983)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Madrid, Cátedra.
- Culicover, P. (1991) 'Topicalization, Inversion and Complementizers in English,' ms.
- _____ (1993) 'Evidence against ECP Accounts of the *That-t* Effect,' *Linguistic Inquiry* 24, 557-561.
- Danford, R. & K. Arrieta-Steman (1994) 'That's a Problem We Can Trace to the Complementizer,' *LSRL XXIII*, Georgetown Univ. Press, 259-270.
- Epstein, S. (1992) 'Derivational Constraints on A'-chain,' *Linguistic Inquiry* 23, 235-259.
- Jaeggli, O. (1986) 'Passive,' *Linguistic Inquiry* 17.
- _____ (1988) 'ECP Effects at LF in Spanish,' *Advances in Romance Linguistics*, Foris.
- Kayne, R. (1981) 'ECP Extension,' *Linguistic Inquiry* 12.
- _____ (1984) *Connectedness and Binary Branching*, Foris.
- Laka, I. (1990) *Negation in Syntax: On the Nature of Functional Categories and Projections*, Ph.D. dissertation, MIT.
- Labelle, M. & D. Valois (1996) 'The Status of Post-verbal Subjects in French Child Language,' *Probus* 8, 53-80.
- Lasnik, H. & M. Saito (1992) *Move- α* , The MIT Press, Cambridge.

- Ormazabal, J. (1994) 'PRO, Null, Case & the Interpretation of Complements,' *NELS* 24, 475-489.
- Picallo, C. (1984) 'The Infl Node and Null Subject Parameter,' *Linguistic Inquiry* 15.
- Rizzi, L. (1982) *Issues in Italian Syntax*, Foris, Dordrecht.
- _____ (1990) *Relativized Minimality*, The MIT Press, Cambridge.
- Saito, M. (1989) 'Scrambling as Semantically Vacuous A'-Movement,' in M. Baltin & A. Kroch (eds.), *Alternative Conceptions of Phrase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im, S.W. (1996) *Temas de sintaxis española y coreana: movimiento del verbo, selección de modo y legitimación de los TPN*, Doctoral dissertation, UAM, Madrid.
- Toribio, A. (1993) *Parametric Variation in the Licensing of Nominals*,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Torrego, E. (1984) 'On Inversion in Spanish and Some of Its Effects,' *Linguistic Inquiry* 15, 103-129.
- Uribe-Etxebarria, M. (1992) 'On the Structural Positions of the Subject in Spanish, their Nature and their Consequences for Quantification,' in J. Lakarra & J. Ortiz de Urbana (eds.), *Syntactic Theory and Basque Syntax*.
- _____ (1995) 'On the Nature of Spec/IP and Its Relevance for Scope Asymmetries in Spanish and English,' in J. Amastae et al., *Contemporary Research in Romance Linguistics*,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Zubizarreta (1982) 'Theoretical Implications of Subject Extraction in Portuguese,' *Linguistic Review* 2, 79-96.
- _____ (1994) 'Word Order in Spanish and the Nature of Nominative Case,' *Gramática del español*.

ABSTRACT

A Study on the Absence of the *that-t* Effect in Spanish

Sang-Wan Shim

This paper tries to propose a new account of absence of the *that-t* effect in Spanish. Within the Principles and Parameters framework it has been widely assumed that suspension of the effect in Romance language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embedded subject firstly adjoins to VP and from this position undergoes long distance *wh*-movement (cf. Rizzi 1982). However, I point out that this analysis enters into conflicts with minimalist assumptions (cf. Chomsky 1993, 1994, 1995). Every movement is for the checking of some features; feature checking always takes place in functional categories and therefore movement to a lexical categories like VP cannot be allowed. In addition to this, I argue that the *wh*-extraction of the embedded subject is not from postverbal position but from preverbal one, Spec of IP.

Adopting the hypothesis that there exists another projection (CP_2) between CP and IP, I propose an alternative account. The embedded subject firstly moves from the Spec of IP to the Spec of CP_2 and from this position moves again toward matrix CP; in this derivation the offending trace is the trace in the Spec of CP_2 , not the one in the Spec of IP; in terms of Chomsky & Lasnik (1991)'s suggestion that intermediate traces can be deleted as a last resort in case of non-uniform chains, the offending trace is deleted, making the derivation a legitimate object at LF, operator-variable chain.

Finally, I present another possibility to account for the suspension of the *that-t* effect: the Spec of IP in Spanish is generated to the right and the postverbal subject occupies this position; the *wh*-extraction is from this position and the suspension of the *that-t* effect is due to this.